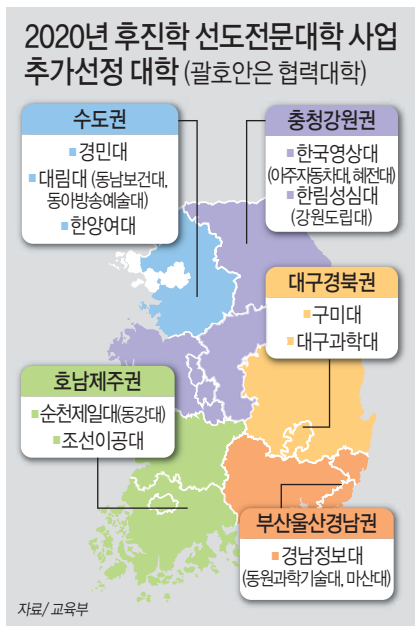
경민대-한양여대 등 10개 전문대 200억 지원, 평생 교육거점 조성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신규 선정
다양한 교육과정·지원계획 추진



정부가 지역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0개 전문대를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은 전문대학에 산·학·관 거버넌스와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재직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대학이 선정됐고,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는 25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10개 전문대가 추가 선정됐다. 권역별 선정 대학은 수도권에선 경민대, 대림대, 한양여대가 선정됐고, 대구경북권에선 구미대, 대구과학대, 부산울산경남권은 경남정보대, 충청강원군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호남제주권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각 대학의 발전계획과 강점분야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이 추진된다. 이들 대학에는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교당 연간 10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경민대의 경우 '경기북부 AHA 플러스 전문직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림대는 '미래친화형 퓨쳐 잡 마스터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운영한다. 한양여대는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고, 한국영상대는 'ECO 혁신모델을 통한 지역 직업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육대 김일목 총장(오른쪽),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왼쪽) /삼육대

삼육대-원자력의학원, 전문 의료인력 육성 맞손

"노원구에 연구클러스터 구축"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 대비
의료인 양성·기술개발 협업

삼육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일목 삼육대 총장과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은 2일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초연구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적극 협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삼육대는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첨단 방사선의학전문기관으로서 실습환경과 훈련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 학술연구 ▲학위과정 등 인력양성 ▲정기 세미나 등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적 고위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학·연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대표적인 종합대학과 의학연구기관인 만큼,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

단국대, 용인·성남 中企·예비 창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

용인시 6개사, 성남시 5개사 선정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용인·성남시의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최대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

3일 단국대에 따르면, 경기도(과학기술과)와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산학협력단은▲지역기반기업 육성지원 사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성남시 42개 기업을 발굴한다.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이달 1일 기준 용인·성남시에 본사를 둔 업력 만 7년 이상의 법인 기업(제조·서비스업) 중 3년간 매출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6개사, 성남시 5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단국대 글로컬산학협력관 전경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용인·성남시의 예비창업자 또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창업(개인·법인)한 기업이다. 각 시에서 6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반도체부품, MEMS, IC 칩, IT디자인, SW 융합산업, 생명공학기술산업 등 용인·성남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ICT·SW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용인시에서 총 10개사를 선정해 1500만원 씩 지원하고 성남시에서 9개사를 선정해 2000만원 씩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연구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별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은 이달 16일까지 단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첫 하교 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3차 개학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대, 수서역 승강장에 초대형 벽화 제작

SR과 승강장 벽화 개막식 진행

세종대 회화과는 최근 ㈜SR과 수서역 승강장 벽화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대 배덕효 총장과 SR 권태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세종대 회화과 이강화 학과장, 벽화 제작 학생들, SR 안전본부장, 영업본부장,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작 동영상 상영 ▲양측 인사말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벽화 감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서역 6번 승강장에 제작된 벽화는 세종대 회화과 15학번 이지환, 김기찬, 서보민, 신종찬, 권봉균 학생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이번 벽화를 통해 SRT 이용객들은 일상 속에서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권태명 SR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강화 회화과 학과장(맨 왼쪽)의 벽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대

벽화는 약 200m 길이의 초대형 사이즈로 제작됐다. 페인트를 활용하는 일반 벽화와 달리 목판에 유화를 칠해 독특한 색감을 보여준다.

특히 소나무 숲, 푸른 바다와 같이 지하의 콘크리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담았다. /이현진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여름휴가 계획 미정"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조사에서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9.1%의 직장인들만이 "여름휴가를 갈 것"이라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023명에게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직장인 9.1%만이 '올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가기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확산' 탓이었다. 직장인들은 72.6%의 높은 응답률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복수응답 결과)'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故 김진구 하사, 67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한국전쟁 발발 70주기 맞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진행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이한 올해, 처음으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가 지난3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진구 하사다.

6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진구 하사는 1928년 2월 20일 경북 영일군에서 4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3살 아들과 부인을 남겨두고 군에 입대했다.

고인의 아내 이분애 님(90세)은 "남편이 함께 처갓집을 가는 길에 업어주는 등 생전 남편의 다정한 면모와 함께한 추억의 애틋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전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채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지난해 10월부터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이 격상됐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와 함께 거행하게 된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50사단장 등과 6·25참전유공자회 등 6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